"코미디가 체질? 액션도 있어요!"

영화 '히트맨' 22일 개봉 … 배우 권상우

배우 권상우(44)가 코미디 영화로 돌아왔다. 주특기인 액션도 함께 선보인다.

오는 22일 개봉해 설 극장가에 올리는 영화 '히트맨'에서 권상우는 웹툰 작가가 되기 위해 국정원을 탈출한 전직 암살 요원 준을 연기했다. 만년 꼴찌에 악플에 시달리던 준은 술김에 국가 1급 기밀이 담긴 내용을 그려버려 국정원과 테러리스트의 더블 타깃이 된다.

종로구 삼청동에서 15일 만난 권상우는 코미디와 액션 장르 모두에 대한 애정을 한껏 드러냈다.

"코미디 영화는 관객들과 접점을 찾는 작업이라 재밌어요. 제가 재밌다고 생각했던 부분과 다른 곳에서 관객이 웃을 때도 있고요. 액션은 저를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운동도 하고 언제나 준비된 상태로 있고 싶죠."

'히트맨'을 연출한 최원섭 감독은 처음부터 준 역에 권상우를 염두에 뒀다고 한다. 권상우는 "감독이 손편지를 써줘서 마음이 움직였다"고 돌아봤다.

"그렇다고 해서 손편지가 결정적인 계기였던 건 아니고요. (웃음) 일단 시나리오가 재밌는 놀이터 같았어요. 또 영화 속에서 준의 딸인 가영(이지원)이 아빠를 응원해주는 내용이 감독님의 경험에서 나온 이야기라는 걸 알고 마음이 더 움직였죠."

영화 속에서 준은 집안에서는 무능한 가장으로, 구박을 받기도 한다. 이를 연기하며 권상우는 자신의 가족을 떠올렸다고 한다.

"이 영화의 가장 중요한 주제는 가족이에요. 딸과 아내에게 원하는 대로 다 해줄 수 없는 답답함과 뭉클함이 있죠. 저도 아빠라서 더 몰입되는 부분도 있었죠. 그래서 연기할 때 부담스럽지 않았어요. 집에서 잔소리요? 많이 듣긴 하죠. '돈'은 다

코믹 이미지 강하지만
액션은 나를 가장 잘 표현
조금이라도 더 젊을 때
멜로 하고 싶어요

르지만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웃음)"

권상우는 지난해 하반기 '두 번 할까요'와 '신의 한 수:귀수편'에 이어 '히트맨'에 이르기까지 연달아 영화 세 편의 주연을 맡아 선보였다. 두 영화는 흥행에는 성공하지 못했다.

그는 "작년과 올해 행보가 나에게는 중요하다"며 "'히트맨'이 흥행이 되면 더 좋은 터닝포인트가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신의 한 수:귀수편'때는 목표치가 있었는데 극장에서 스코어가 생각보다 잘 나오지 않아서 아쉬웠어요. '히트맨'은 제가 가진 능력을 최대한 쏟아부으려고 했어요. '히트맨'과 경쟁할 영화들에 모두 출중한 배우들이 나와서 흥행 결과는 모르겠지만요. 제가 한 영화 중에 처음으로 아들 손 잡고 함께 볼 수 있는 영화인 것 같아요. 만약 후속작이 나오게 된다면 성공한 것이 아닐까요?"

그는 "나이를 더 먹기 전에 멜로 연기를 하고 싶다"고 강조했다.

"제가 이끌어가는 작품을 하는 것이 앞으로 길어야 5년일 것 같아요. 그다음부터는 좋은 배우로 쓰일 수 있으면 과감하게 하려고요."

드라마 '슬픈연가'(2005)에서 보여준 '소라게' 장면으로 꾸준히 사람들 입에 회자하는 등 대중에게 코믹 이미지가 강해진 것에 대해서는 "내 이름을 불러주는 것만으로도 고맙다"고 밝혔다.

"배우들은 잊히면 안 되잖아요. 그렇게 절 기억해주시니까 좋죠." /연합뉴스

30주년 '배철수의 음악캠프' 영국 BBC 스튜디오서 특집

3월 19일 청취자 초대 공개방송 … 스페셜 다큐도 준비

MBC FM4U(91.9㎒)는 오는 3월 '배철수의 음악캠프'(사진) 방송 30주년을 앞두고 영국 BBC 스튜디오에서의 특집 방송 등 다양한 기획을 준비 중이라고 15일 밝혔다.

1990년 3월 19일 시작한 '배철수의 음악캠프'는 방송사적으로도 '세상에서 가장 오래되고 세상에서 가장 많은 것들의 기록'을 보유한 프로그램으로 꼽힌다.

단일 DJ로 30년간 마이크를 지킨 최장수 팝 음악 전문 DJ 배철수뿐만 아니라, 24년째 코너지기로 청취자와 함께 하는 최장수 게스트인 대중음악 평론가 임진모, 단일 프로그램 최장수 작가(김경옥), 국내 라디오 역사상 최다 해외 아티스트 출연(280팀)이라는 전무후무한 기록을 세웠다.

제작진은 방송 30주년을 30일 앞둔 다음 달 17일부터 21일까지 영국 런던의 BBC 라디오 스튜디오에서 '라이브 앳 더(Live at the) BBC'라는 제목으로 닷새 간 특집 생방송을 연다.

BBC 마이다 베일(Maida Vale) 스튜디오는 비틀스, 데이비드 보위, 레드제플린, 라디오헤드, 오아시스, 아델, 콜드플레이를 비롯한 무수한 브릿팝 가수가 라이브 공연을 선보인 장소다.

특히 비틀스나 다이어 스트레이츠, 플릿우드 맥, ELO 등은 BBC에 출연했을 당시의 공연을 묶어 'Live at the BBC'이란 제목의 음반을 제작하기도 했다.

'배철수의 음악캠프'는 현지시간 오전 9~11시, 서울 시각으로 오후 6~8시 생방송할 예정이다. BBC 스튜디오에서 방송을 제작하는 것은 '배철수의 음악캠프'가 처음으로, BBC 본사를 거치는 실시간 생방송 송출은 사상 최초다.

30주년 당일인 3월 19일에는 '배캠 30년, 청취자들과 함께, Satisfaction'(가제)이라는 청취자 초대 공개 생방송과 스페셜 다큐멘터리도 마련된다. /연합뉴스

부하로 만난 꼰대 부장…MBC '꼰대인턴' 5월 편성

MBC TV는 오는 5월 코믹 오피스극 '꼰대인턴'을 수목극으로 편성한다고 15일 밝혔다. '꼰대인턴'은 최악의 '꼰대' 부장을 부하직원으로 맞게 된 남자의 통쾌한 복수극이자 시니어 인턴의 일터 사수기를 그린다.

입사하자마자 핫닭볶음면을 기획해 위기에 빠진 준수식품을 구한 신화적 인물인 라면사업부 마케팅팀장 '가열찬'. 승승장구하던 그의 앞에 한때 꼰대의 정석이라 불리던 '이만식'이 시니어 인턴으로 준수식품에 입사한다.

과거 경쟁사 '옹골'에서 인턴과 꼰대 부장으로 만난 두 사람의 관계 역전이 통쾌한 묘미를 보여줄 예정이다.

이 드라마는 2018년 MBC 드라마 극본 공모에서 최우수상을 받은 신소라 작가 작품이다. /연합뉴스

TV프로그램 16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KBS1	KBS2	MBC	KBC/SBS
6	00 KBS 뉴스 광장	00 걸어서 세계속으로 50 생방송 아침이 좋다	00 MBC 뉴스투데이 1~2부	00 모닝와이드 1~2부
7	50 인간극장		20 광주 MBC 뉴스투데이 50 나쁜 사랑	15 KBC 모닝와이드 35 모닝와이드 3부
8	25 아침마당	00 KBS 아침 뉴스타임	30 생방송 오늘 아침	35 맛 좀 보실래요
9	30 KBS 뉴스	00 꽃길만 걸어요(재) 40 무한리필 샐러드	30 930 MBC 뉴스 45 기분 좋은 날	10 좋은아침
10	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40 지구촌 뉴스	45 하자있는 인간들(재)	10 SBS 뉴스 20 KBC 생활뉴스 30 열린TV 시청자 세상
11	00 동행(재) 55 UHD 숨터(재)	00 99억의 여자(재)		30 고향이 보인다
12	00 KBS 뉴스 12	10 우아한 모녀(재)	00 12 MBC 뉴스 20 두 번은 없다(재)	00 SBS 12 뉴스 25 민방 네트워크 뉴스 50 톡톡 보험설계
1	00 신년기획 사랑의 가족 50 KBS 재난방송센터(재)	5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재)	20 꾸러기 식사교실 50 2시 뉴스 외전	55 닥터 365
2	00 KBS 뉴스 10 테테루 테디베어 마을의 비밀 25 출동! 애니멀 레스큐 40 엉뚱발랄 콩순이와 친구들 5 55 숲 속 친구 스토니즈			00 뉴스브리핑
3	10 이웃집 찰스(재)	00 KBS 뉴스타임 10 자동공부책상 위키 2 30 TV 유치원	20 아이돌 타임 프리파라 50 뽀뽀뽀 모두야 놀자 스페셜	
4	00 사사건건	00 누가 누가 잘하나	20 나쁜사랑(재)	00 테마스페셜 55 닥터 365
5	00 KBS 뉴스 5 30 전국을 달린다 40 남도 지오그래피	00 또봇V-갤럭시웨폰 4호의 비밀 15 핑크퐁 원더스타 30 주간연예수첩	00 5 MBC 뉴스 25 앙코르 창사특집 다큐멘터리 휴머니멀	00 SBS 오뉴스 45 KBC 저녁뉴스
6	00 6시 내고향	00 KBS 경제타임 30 2TV 생생정보	25 오매! 전라도	00 최강 1교시(재) 55 닥터 365
7	00 뉴스7 광주전남 40 한국인의 밥상	50 우아한 모녀	30 MBC 뉴스데스크	00 건강한 토크쇼 내 몸을 부탁해
8	30 꽃길만 걸어요	30 글로벌24 55 제보자들	55 하자있는 인간들	00 SBS 8 뉴스 35 KBC 8 뉴스 55 순간포착 세상에 이런일이
9	00 KBS 뉴스9			
10	00 다큐 인사이트 55 더 라이브	00 99억의 여자	05 창사특집 다큐멘터리 휴머니멀	00 맛남의 광장
11	35 UHD 숨터 40 KBS 네트워크 특선 올댓뮤직	10 해피투게더 1~2부	05 문화콘서트 난장	50 접속! 무비월드 스페셜
12	30 KBS 뉴스 40 인간극장 스페셜	40 스포츠 하이라이트	15 편애중계 스페셜	45 나이트라인

EBS1

07:00 출동! 슈퍼윙스
07:30 뽀로로와 노래해요
08:00 딩동댕 유치원
08:30 미니특공대 슈퍼공룡파워
08:45 방귀대장 뿡뿡이
09:00 고고다이노 공룡탐험대
09:15 올리 앤 문
09:30 다큐동화 달팽이
10:00 지식의 기쁨
10:30 한국기행(재)
10:50 최고의 요리비결
11:20 세계테마기행(재)
12:00 EBS 정오뉴스
12:10 펫하트
13:00 다큐 시선
13:55 발견의 기쁨 동네책방
14:45 다큐동화 달팽이(재)
14:55 피피루 안전특공대(재)
15:10 출동! 슈퍼윙스(재)
15:25 트리푸톰
15:55 미니특공대 슈퍼공룡파워(재)
16:10 예술아 놀자
16:25 페파 피그(재)
16:40 딩동댕 친구들-장난감나라의 비밀
17:00 EBS 뉴스
17:20 뭐든지 뮤직박스
17:30 고고다이노 공룡탐험대(재)
17:45 올리 앤 문(재)
18:00 꾸러기 천사들
19:00 미라큘러스: 레이디버그와 블랙캣
19:30 생방송 판다다
20:00 4남매 쇼
20:30 자이언트 펭TV
20:50 세계테마기행 1~2부
〈땅 끝 사람들 러시아 -야생의 땅 극동 러시아〉
21:30 한국기행
〈밥상 위의 겨울 4부 그리워라, 엄마 밥상〉
21:50 다큐 시선
22:45 싱어즈:시대와 함께 울고 웃다
23:35 발견의 기쁨 동네책방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1월 16일(음 12월 22일 戊午) ☎ 010-9790-8237

子 36년생 인식하고 있는 바보다 못 미치니 안심해도 된다. 48년생 노력을 전제한다면 유익한 국면에 이른다. 60년생 이번 고비만 잘 넘기면 호전 될 것이다. 72년생 모면하려고만 한다면 송두리째 흔들릴 것이니 근본원인을 파헤쳐야할 것이다. 84년생 지금이라도 반전시키는 것이 백번 낫다. 96년생 답벼락하고 말하는 셈이니 입만 아플 것이다. 행운의 숫자 : 64, 46

丑 37년생 신중해야만 정확히 대처할 수 있느니라. 49년생 열린 마음으로 투명하게 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61년생 운기가 힘차게 솟구쳐 오르는 형상이다. 73년생 변화에 적응해야만 한다. 85년생 새로운 관점에서 바라본다면 차원이 달라질 것이니라. 97년생 급변으로 인한 충격이 보인다. 행운의 숫자 : 72, 05

寅 38년생 버스 지나간 후에는 손들어봤자 아무런 의미가 없다. 50년생 가벼운 현상에 불과하니 그다지 의식할 필요는 없다. 62년생 포용하고 나아가는 것이 무리가 없으리라. 74년생 방법에 따라서 상황이 판이해질 수 있겠다. 86년생 기회들이 연달아서 다가 올 수이다. 98년생 애매할 것이다. 행운의 숫자 : 79, 51

卯 39년생 실속이 있어 보이니 확실히 붙잡아라. 51년생 정리 단계에 들어가는 양상이니라. 63년생 본래의 취지를 희석시키지 말라. 75년생 격식에 맞아야만 빛도 발하는 법이다. 87년생 확실하다면 사전에 변경해도 무방하다. 99년생 우물가의 공론도 귀담아 들으랬다. 행운의 숫자 : 74, 11

辰 40년생 옳다고 확신한다면 밀어붙여도 된다. 52년생 반추해 본다면 깊은 의미를 찾아낼 수 있을 것이다. 64년생 장애물이 사라지면서 뜻한 바를 이루리라. 76년생 되풀이 한다고 해서 만회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88년생 주변의 아픔을 함께 나누는 형국이로다. 00년생 처신을 잘 한다면 따르는 이가 많으리라. 행운의 숫자 : 33, 45

巳 41년생 세심하게 정리 정돈해야 할 때다. 53년생 그냥 지나치지 말라. 65년생 굳이 내면까지 모두 드러낼 필요는 없도다. 77년생 벗어나지 않으면 후회 하리라. 89년생 소금 팔러 갈려니까 비가 내리는 격이다. 01년생 별 것 아니니 노파심일랑 내던져 버리고 안심해도 된다. 행운의 숫자 : 03, 59

午 42년생 이 세상에서 자신의 속마음을 알아주는 이는 단 한 명도 없을 것이다. 54년생 매우 부담스럽고 벅찬 하루가 될 것이니라. 66년생 진행해도 무리가 없고 좋은 결과가 있을 수다. 78년생 희망 사항이 현실화 될 수도 있다. 90년생 비슷한 국량으로 환원될 것이다. 02년생 과정에 충실하다보면 완성도가 높아지겠다. 행운의 숫자 : 10, 75

未 31년생 상호 의존적인 관계에 놓여 있다. 43년생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입장에 놓여 있음을 인식하자. 55년생 원하는 것은 보이지 않고 엉뚱한 것만 눈에 띤다. 67년생 미흡한 점을 보완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다가오고 있다. 79년생 활로가 개척 될 것이다. 91년생 요령 있게 대처해야만 상황을 정리할 수 있다. 행운의 숫자 : 69, 81

申 32년생 도약의 발판을 마련할 절호의 찬스이니라. 44년생 과거의 행적과 연관 되어질 가능성이 높다. 56년생 길한 징조가 다가오고 있으니 예의 주시 하여야 한다. 68년생 기괴한 기운이 휘몰아치니 이변이 예상된다. 80년생 조금만 더 노력하면 머지않아서 호전 되겠다. 92년생 최선을 다 한다면 반드시 목적지에 이를 것이다. 행운의 숫자 : 31, 95

酉 33년생 제3자의 충고를 명심하자. 45년생 당황하지 말라. 57년생 처세만 잘 한다면 좋은 일이 줄을 이을 것이다. 69년생 부주의 한다면 큰 일 날수도 있을 것이다. 81년생 지나치다면 부자연스러울 수밖에 없다. 93년생 고단하더라도 꾹 참고 한 결같이 진행해 나가다 보면 행운이 따른다. 행운의 숫자 : 86, 62

戌 34년생 현재의 어려움을 견뎌 낸다면 희망찬 미래를 연다. 46년생 일이 터지기 전에 대처하라. 58년생 지대한 관심의 대상이 생기면서 바빠질 것이니라. 70년생 돈으로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 생긴다. 82년생 원하는 대로 되어서 기뻐하리라. 94년생 마음먹고 있었던 바를 확실히 추진해야 할 때다. 행운의 숫자 : 44, 48

亥 35년생 숨어 있는 맹점이 노출 되겠다. 47년생 급작스런 변화가 보인다. 59년생 객관적인 자료를 참고 해야 한다. 71년생 발군의 기량을 발휘할 결정적인 시기이다. 83년생 초기 계획과는 약간 다르게 이행 될 가능성이 높다. 95년생 상향 조정 되거나 훨씬 늘어나는 판시세로다. 행운의 숫자 : 13, 34